

“내 안의 편견 뚫고 꿈을 향해 날아 오르세요”



전남대 특강 중국 항공사 첫 한국인 여성 기장 조은정 씨

지난 23일 오후 전남대 컨벤션홀에는 아주 특별한 여성이 등장했다. 중국 최초 한국인 여성 기장 조은정(41·중국 지상(吉祥)항공)씨가 주인공으로 12년 전 호텔리어로 일하던 그녀가 ‘파일럿’이란 목표를 세우고 7년 만에 당당하게 변신한 것이다.

2013년 7월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기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기장, 부기장을 모두 합쳐도 9명 뿐이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이공계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호남제주권역사업단과 전남대학교가 마련한 ‘공학을 꿈꾸는 소녀들의 축제’, 미술 교사를 꿈꾸며 평범한 삶을 살다가 결코 넘기 힘들어 보였던 벽을 넘어 중국 최초 한국인 여성 기장이 되기까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에 강연장을 가득 채운 600여명의 학생들은 물론 몰려들었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카드 회사 등을 거쳐 호텔에서 일하게 된 그녀는 어느 날 남성 부기장 두 명을 거느린 채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여성 기장

을 발견했다. 그때만 해도 ‘29살 조은정’은 비행기 기장이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다. 조 기장은 그녀에게 멀리는 마음으로 물었다.

“여성도 기장을 할 수 있나요? 저도 기장이 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베�테랑 외국인 여성 기장은 파일럿 꿈나무를 향해 당연히 할 수 있다며 자신의 노하우를 전했다. 조 기장은 하늘 위에서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일럿이 되기로 다짐했다. 쉽지 않은 길이기에 주변의 반대가 극심했다. 그렇지만 자신의 꿈을 타인의 말안 들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당장 어떻게 하면 파일럿이 될 수 있을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기장 먼저 호텔을 찾아오는 기장들에게 파일럿이 되려면 무슨 공부가 필요하고 어떤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물었다. 그 숫자가 100명도 넘고 그들에게 얻은 정보를 기록한 종이가 거의 책 한 권 두께다. 마침내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안에 비행을 익힐 수 있는 비행기 클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미군 관

29세 호텔리어시절 파일럿 꿈꿔

美 대사관 이직·엘타항공 유학 등

10년 노력 끝 39세에 기장으로

계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기에 출입조차 쉽지 않았다. 그녀는 대사관 직원들이 비행기지 ‘출입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 대사관을 찾았다. 대사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업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8개월간 대사관직원 채용공고가 있을 때마다 찾아갔지만 세 번이나 낙방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기적이 찾아왔다.

“당시 토머스 하버드 대사가 새로 오셨는데 미국인 비서를 채용하는 관례를 꾸고 한국인 비서를 찾으셨어요. 그때 마침 자리를 심사했던 대사관 직원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대사님 비서로 일해볼 생각 없느냐고 연락을 주셨죠.”

이렇게 미 대사관에서 생활이 시작됐고, 드디어 출입증을 얻게 됐다. 약 2년간 미군 기지를 드나들며 경

비행기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엘타항공 비행교육원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종면허 7개를 취득 한 후 중국에서 항공학교 교관으로 일하게 됐고, 그녀를 유심히 지켜 본 교관들의 추천으로 2011년 중국 지상항공에서 기장이 됐다. 그녀의 책 제목처럼 스몰아홉 기장이란 꿈을 꾸고 서른 아홉 비행을 시작한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다.

“승객을 나르는 기장을 넘어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나르는 기장이 되기로 했어요. 향후 동북아시아 전문가가 돼서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요.”

현재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조 기장은 오는 8 월 현지에서 업무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9월부터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 희망을 전하겠다는 조은정 기장, 그녀의 비행이 더욱 기대된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 프로골프협, 청소년 가장돕기 300만원



광주 프로골프협회(회장 박종상)는 24일 나주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에서 ‘제2회 소년·소녀 가장돕기 자선 프로암 골프대회’를 열고 경기 수익금 300만원을 광주 소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광주프로골프협회 제공)

새마을지도자남구협, 자율방역단 발대



새마을지도자광주광역시남구협의회(회장 정남석)는 지난 22일 푸른길 공원 빅스포 광장에서 장마철 방역강화를 위한 ‘신바람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가졌다. 신바람 자율방역단은 민간 자율방역단으로, 이날 발대식에서는 방역 안전교육과 함께 방역장비 점검 및 시연이 진행됐다.

(신바람 자율방역단 제공)

“韓-日 양국 역사, 이제 공유할 때”

유홍준 교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 펴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을 펴낸 유홍준 명지대 교수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편은 1권 규슈편, 2권 아스카·나라편, 3권 교토편, 4권 오사카편 등 모두 4권이며 이번에 1, 2권이 먼저 나왔다. 한반도가 일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줄 때 동시에 일본이 스스로 일궈낸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긍정 평가하면서 양국이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려면 ‘역사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국 독자를 의식하고 썼다”는 유 교수는 “이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만천하에 드러내어 한일 양국이 공유할 때가 됐다”며 양국 독자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다.

올해 정년 퇴임하는 유 교수는 제주도편에 이어 남한강편, 가야편, 독도 등 섭 편을



펴내며 답사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조선대 김재성·김수관 교수 日악관절학회 우수포스터상



이에 따라 두 교수는 퇴행성 관절염의 병리학적 원인 인분석, 임상적

치료제 개발 및 환통증제 개발을 위한 전임상적 퇴행성 관절염 동물모델 개발 연구 등을 수행했다.

치료제 개발 및 환통증제 개발을 위한 전임상적 퇴행성 관절염 동물모델 개발 연구 등을 수행했다.

/채희경기자 chae@

무안 현경북초 ‘독서캠프’



무안 현경북초등학교(교장 정정범)는 지난 19일부터 이를간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서활성화를 위한 ‘도란도란 별사랑 독서캠프’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신문을 보며 토론 주제를 직접 찾고,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훈련을 이혔다.

정정범 교장은 “이번 캠프를 하면서 교사들은 신문 활용교육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느꼈고, 학생들은 스스로 창의력을 가지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추후에도 신문 활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광주농협, 중企·소상공인 활성화 2억원 지원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보 이근)는 24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1억 7300만원을 광주신문 보증재단에 전달했다.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지난 2007년 첫 출연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9억 5600만원을 출연했다.

(농협 광주본부제공)

송원대-광주보훈병원 인력양성 협약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와 광주보훈병원(원장 정광익)은 24일 송원대 신관동 회의실에서 ‘나리사랑 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능성구씨 광주전남종회(회장 구연수) 2013년 7월 월례회=27일(토) 오전 11시 치평동 상무트윈빌딩 7층 종회 사무실 062-381-001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복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

526-3370.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앰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온라인 등) 및 기족대처=성인온라인(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온라인 등) 및 기족대처센터 062-368-1000.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망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이론과 현상, 정상 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

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어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으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 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8월 24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도서관 5층, 양택, 읍택·수백·나경·

입향론·비결록·명당·장법·묘강 등 전통적인 이론과 현상, 정상 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

2161, 2135.

▲2013년 광주향교 하계 한문 무료 교육=접수는 26일(금) 오후 3시까지, 교육기간은 8월 1일~8월 29일 오전 9시~11시, 초등반(기초한자·사자소학)·중등반(천자문·명심보감), 수강 후 수료증 수여 향교 사무실 062-672-7008.

▲(사)광주시 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현수 전문봉사단’ 육성 교육 수강생=23일(화)까지 선착순 20명. 전문봉사단에서 봉사활동 가능한 사람, 9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11시30분까지 12주 강의. 062-223-1357, 010-2646-5023.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위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위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이퇴직 후 자기계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생애준비를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 교육과정은 노후 생애 설계, 생활영역, 한시, 웃음 치료, 노인상담심리학. 대상은 노후준비 희망자, 열정있는 중장년, 건강한 은퇴자(선학순 35명) 원서접수 22

일~8월 21일(수) 오후 5시까지(합격자 발표 8월 26일 개별통지) 062-223-1357, 010-2646-5023.

▲축구회원=축구를 통해서 친목 도모하고 활기찬 여가운동을 하고자하는 20~50대 축구회원모집, 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인조구장 010-9604-1681(신찬수).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창작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어름방학 자원봉사프로그램 참가자=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 인권, 환경 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학습 및 활동,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

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자원봉사 상